

1. 가장 심혈을 기울여 목표를 성취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인 동기, 행동, 결과 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꿈은 꿈을 물고 온다.

고등학생 시절의 꿈, 건축공학도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이루고 나니 현실에 안주하며 지냈습니다. 꿈 많던 여고생 시절의 일기장과는 다른 현실의 반복이었습니다. 여름 계절학기에 리투아니아에서 오신 교수님의 수업을 듣다가 리투아니아에서 건축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체계적인 건축수업을 들으면 건축공학도의 꿈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리투아니아 교환학생에 지원했습니다. 건축공학과에서는 여학생이 다녀온 사례가 흔치 않았기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다녀온 선배로부터 준비했던 자료도 받고 영어 면접 연습도 했습니다. 함께 면접을 봤던 학생들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면접이었는데 건축에 대한 애정을 담아 이야기했더니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KEPCO의 사원이 되는 꿈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을 해왔습니다. KEPCO에서 도전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전력사업에 뛰어들겠습니다.

2.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나에게 예상되는 손해를 감수하고 일을 수행한 경험과 그에 따른 결과 및 느낌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나 하나쯤은 보다는 나 하나로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평소 에너지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자원봉사자를 지원하여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총회 참석인원들의 안내 업무였습니다. 많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총회를 찾았고 많은 대구시민도 총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안내는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1층에서 안내를 맡고 있었는데 내국인의 안내는 다들 잘하지만 외국인의 안내는 다들 어려워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외국 생활의 경험을 살려 외국인 안내를 도맡아 했습니다. 총회를 방문한 외국인에게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 행사장 안내를 했고, 행사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바쁘게 움직이며 안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비록 똑같은 임무를 맡았지만 제가 조금 바쁘고 힘든 것을 감수함으로써 원활한 행사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한전에서도 항상 술선수범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3. KEPCO에 지원하기 위하여 귀하께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십시오.

현장과 소통하는 인재

우리는 이제 전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졸업논문을 위해 자료조사를 하던 중, 재해재난이나 블랙아웃과 같은 비상사태가 일어나도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상전원설비에 관해 자료조사를 하였지만,

인터넷과 책만으로는 배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하여 설비 담당자를 직접 만나 비상전원설비에 관해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이론과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아직 비상사태에 대한 지침은 미흡하고 비상전원설비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를 발전시켜 현재 전력수급 안정화를 중요임무로 하고 있는 한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관리본부 비상안전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재난에 대비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여 문제 해결에 임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고객님들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 학교에서 습득한 전공 또는 기타 지식을 연계.활용하여 최근 한전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문제를 개선 또는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력난이 빈번해지자 정부와 한국전력의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친환경에 앞장서는 시민, 깨끗한 에너지를 쓰는 소비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큐슈에서 열리는 세미나 참석차, 기타큐슈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타큐슈는 1970년대까지 일본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에서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한 도시였습니다. 에코타운 건립에는 환경오염을 걱정하던 주부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컸다고 했습니다. 주민 스스로 노력한 기타큐슈시처럼 우리나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는 전력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생산도 함께하는 것이라는 전기의 새로운 가치를 심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한정된 에너지 자원을 탓하기 전에 소비자 교육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를 만들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저도 시대에 발맞추어 새로운 가치를 소비자에게 심어줄 수 있는 KEPCO의 사원이 되겠습니다.